예수, 회당, 그리고 공동체성경읽기(PRS)

저자

찰스 김 (Charles Kim)
The Grace and Mercy Foundation

토미 기븐스 박사 (Dr. Tommy Given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번역

이종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4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심)

예수, 회당, 그리고 공동체성경읽기(PRS)

예수의 생애에서 회당의 역할과 오늘날 성경 사용에 대한 시사점

저자

찰스 김 (Charles Kim)
The Grace and Mercy Foundation

토미 기븐스 박사 (Dr. Tommy Given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번역

이종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Public
Reading
of Scripture

무료 성경
앱(App)

오디오파일

Version 2.2

© 2026 The Grace and Mercy Foundation

목차

들어가는 글 7

침묵의 세월: 공생애 이전 예수님의 성장기 엿보기 8

주후 1세기 초 회당의 중요성 14

예수님의 회당 참여와 지식 습득 26

회당 관습의 관점에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공동체성경읽기" 30

회당: 그때와 지금 36

들어가는 글

이 글은 예수님의 생애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 즉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 회당에 참여하시고 회당의 관습(practices)을 따르신 것이 예수님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글은 1세기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 그리고 공동체성경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예배 형성에 있어 회당이 했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회당에 참여하시며 예수님이 따르셨을 관습을 살펴보면, 공동체성경읽기가 예수님의 성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본적 본보기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초대 교회에게 "공동체성경읽기(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에 전념하라고 권면했는데 (디모데전서 4:13), 이와 더불어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은 공동체성경읽기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삶에 언제나 중요한 일임을 말해줍니다.

회당에 참여하시며 예수님이 따르셨을 관습을 살펴보면, 공동체성경읽기가 예수님의 성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됩니다.

Charles Kim, Dr. Tommy Givens 2025

침묵의 세월:
공생애 이전 예수님의
성장기 엿보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 삶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고 어떤 사명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만,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 12살 때 예수님이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당시의 지적, 영적 중심지였던 성전에서 유대인 율법선생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며,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46b-47).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에 관해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정경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는 바가 없지만, 공인이 되었을 무렵에 이미 예수님이 익히고 있었던 관습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4:15-16) 라고 말합니다. 회당과 그 예배 관습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서 확고히 중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복음서가 모두 보여주는 바,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특히 거기 회당들을 다니시며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은 회당에서의 정기적인 모임과 관습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셨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그 시대 유대 공동체의 사회적, 종교적 삶에 대한 여러 현존하는 증거들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회당은 유대인의 여러 관습들을 담아내는 장소가 되었고, 이 중 많은 것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토라(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공적으로 낭독하는 관습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회당에 정기적으로 모여 훈련 받은 낭독자들이 길게 소리내어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16-19

읽는 성경을 듣는 이 유대 관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예전(liturgy)과 행위와 기도와 더불어, 예수님은 성경을 듣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관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셨을 것이며, 이것이 그분 삶의 핵심 기둥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전체 유대 공동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이 관습 덕분에 유대인들은 수세대에 걸친 유수(exile) 생활과 제국들의 지배와 이민족에게 동화되어 멸절될 위험 속에서도 고유한 민족으로서의 기억과 삶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의 공동체성경읽기라는 이 중요한 관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토대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그 성장기 시기에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예배에 지속적으로—이따금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간 일상에 통합된 관습으로—참여하셨습니다. 공동체성경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적 예배에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은 앞으로의 사명 감당을 위한 영적, 지적 기초를 다지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온전히 사람인 분이셨던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게 되셨을까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기에 그냥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도 인간적 학습 과정을 거치셨던 것일까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기에 그냥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 예수님도 인간적 학습 과정을 거치셨던 것일까요?

신학적 사변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셨나 하는 질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그분의 삶의 습관들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정기적 회당 예배 참여는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사역에 대한 감각을 기르셨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구체적 맥락이 되어줍니다.

주후 1세기 초 회당의 중요성

유대 사회에서 회당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 발전했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쟁거리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회당은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논의들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 중 하나는 공동체 예배 관습의 제도화에 있어서 모세가 한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히브리 백성들을 정기적으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공적으로 낭독한 성경적 근거는 출애굽기에서 처음 제시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에게 낭독하는 출애굽기 24장 4-7절에서 다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방법(practice)을 더욱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의 반복은 해당 관습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12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신명기 31:12-13

모세는 마지막 연설에서 일련의 설교를 통해 율법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신명기 31:12-13). 그는 지도자들에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남자와 여자, 아이들, 그리고 체류 외국인들까지 모두-를 모이게 하여 그들로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17:14

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4-7

모임은 율법을 잘 모르는 이들, 특히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배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관습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 8:34-35).

---

34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 8:34-35

성경 히브리어에서 <*likro*>라는 동사는 단순히 "읽다"를 의미할 뿐 아니라 "부르다" 혹은 "선포하다"라는 뜻도 가지며,[i]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토라가 단순히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조용한 독서를 위한 책이 아니라, 모인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되는 책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기록된 본문이 낭독되는 동안 전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귀로 들으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likro*〉라는 동사는 단순히 "읽다"를 의미할 뿐 아니라 "부르다" 혹은 "선포하다"라는 뜻도 가지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경청하는 일, 언약의 의무였던 이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세대가 나타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 만연해졌습니다(사사기 2:10). 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긴 영적 쇠퇴의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고, 거듭해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구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어진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소수의 왕들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았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그분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치하 때 왕국은 분열되었고, 이후 공동체성경읽기는 너무 오랫동안 등한히 여겨져, 급기야 율법책의 존재가 완전히 잊혀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북쪽 왕국은 다른 신들이 해주는 거짓 약속들을 쫓아갔고, 그러다 결국 침략과 유수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편,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기원전 7세기, 다윗의 후손인 요시야 왕의 통치 때, 잊혀졌던 율법책이 다시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열왕기하 22-23). 율법책의 발견과, 이에 따른 공동체성경읽기의 회복은 요시야 왕 치하에서 큰 개혁과 영적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후에 유다 왕국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겪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 살게 되었는데, 이 고난의 시기에 회당이 유대인 공동체와 종교 생활의 중심 기관으로

등장했습니다. 나라와 성전을 잃고 흩어져 살아갔지만,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나 곳곳에 세운 회당에서 토라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언약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소수의 사람들은 공동체성경읽기를 우선시했는데, 이는 포로기 때 회당 예배를 통해 굳어진 전통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새로이 하게 되며, 이는 깊은 영적 부흥을 낳았습니다. 에스라의 지도 하에 도시 광장에서 대대적인 공동체성경읽기가 행해졌는데,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이 일은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비탄 뿐 아니라 기쁨과 새로운 헌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스라의 지도 하에 도시 광장에서 대대적인 공동체성경읽기가 행해졌는데,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이 일은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비탄 뿐 아니라 기쁨과 새로운 헌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일은 유수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들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새로운 헌신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수 생활 동안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성전 예배 관습들을 회당의 상황에 맞게 개조시켰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공동체 생활의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개조는 그들의 영적 정체성에 심원한 영향을 주었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2성전 시대 후기에 이르면, 회당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예배와 공동체 생활의 핵심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2성전기 유대교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인 E.P. 샌더스(E. P. Sanders)는 고대 회당 관습의 맥락에서 이런 발전을 살펴봅니다. 그는 잘 알려진 1세기 로마-유대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를 인용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1세기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여 히브리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것은 모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ii]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회당 비석에는 기원전

1세기 초 회당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회당의 중심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보면, 회당은 " 토라를 읽고 계명을 연구하기 위해," 그리고 관련된 환대(hospitality) 서비스를 위해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iii]

유대학 학자인 에릭 마이어스(Eric Meyers)는 고대 회당에서 토라 두루마리를 보관하던 벽장(cabinet)인 토라 아크(Torah Ark/*Aron HaKodesh*)의 의미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마이어스에 따르면, 이 거룩한 공간은 유대인의 종교 생활에서 토라가 갖는 중요성을 상징하며, 토라 아크(Torah Ark)와 그 안의 두루마리들은 공동체 내에 성경이 차지했던 높은 지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iv]

>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
> –사도행전 15:21

회당이 차지했던 중요성은 신약성경에서도 확인됩니다. 사도행전 15:21에서 누가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각 성에서"라는 표현은 안식일 날의 성경 읽기가 유대인의 종교 생활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전통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신약성경 학자인 레이첼 하클릴리(Rachel Hachlili)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하면서 "제2성전 시대 회당에서 공동체성경읽기는 단순히 회당의 여러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 그 본질적 활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체성경읽기는 회당의 핵심 활동으로서, 토라와 기타 성경들을 보존하고, 회중 앞에 낭독하고 가르치는 장소로서의 회당, 유대인의 종교적, 공동체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회당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v]

공동체성경읽기는 회당의 핵심 활동으로서, 토라와 기타 성경들을 보존하고, 회중 앞에 낭독하고 가르치는 장소로서의 회당, 유대인의 종교적, 공동체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회당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학술 연구에 비추어 볼 때, 회당은 공동체성경읽기를 매주 정기적으로 유지시킨 중요

기관으로서, 유대 백성들에게 영적 양식과 강한 집단적 정체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환경은 소년 예수님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며, 예수님은 훗날 그분의 가르침과 사명의 배경이 되는 성경말씀들을 이러한 환경에서 내면화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의 고대 회당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상적인 흰색 석회암 유적은 4–5세기에 세워진 회당의 흔적으로, 그 아래에는 더 오래된 검은 현무암 기초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기초가 복음서에 언급된 1세기 회당의 유적으로, 누가복음 7장 1–5절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이 후원해 지은 바로 그 회당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후 1세기 초 회당의 중요성

예수님의 회당 참여와 지식 습득

역사적, 종교적 문헌들에 대한 연구에 기초해 생생히 그려볼 수 있는 바, 예수님은 당시의 다른 유대인들처럼 주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두루마리의 희귀성, 비용, 그리고 신성한 지위를 고려할 때,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동안 그분의 가족이 성경 사본을 개인적으로 소장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성경 자체가 원래 개인적 독서를 위한 책이 아니라, 공적 낭독과 경청을 위한 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회당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은 성경말씀을 통한 그분의 성장에 실로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원래 개인적 독서를 위한 책이 아니라, 공적 낭독과 경청을 위한 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치유를 행하시는 모습을 자주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4:23-25).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날들에도,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 자주 가셔서 신학적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당시 관습에 따라 회당의 정해진 시간 외에도 가르치는 활동을 하셨을 것입니다(누가복음 4:16).

이렇게 예수님의 깊은 성경 지식은 그분이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의 공동체성경읽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신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은, 잘 아셨던 말씀인 신명기 8:3에 나오는 구절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며 새기셨을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3

회당 관습의 관점에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공동체성경읽기"

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전서 4:12-13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에베소로 돌아올 때까지 공동체성경읽기를 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침은 초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연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지도력을 발휘해 (디모데전서 4:12)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전념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지속적으로 헌신하라는 의미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줍니다.

"공동체성경읽기"라는 표현은 헬라어 '아나그노시스' (*anagnōsis*)를 번역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을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읽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관습은 유대인의 회당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매 안식일마다, 또 거룩한 절기들과 기타 절기 때, 모인 회중 앞에서 길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유대인 회당 전통을 따라, 초대 교회는 정기 모임 때 히브리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관습을 실천했는데, 보통 헬라어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사이에서 회람되던 사도들의 편지와 복음서들도 공적으로 낭독했습니다.

4세기에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이 글들은, 히브리 성경과 더불어, 영감받은 글로 여겨졌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로서, 공동체성경읽기는 성경 몇 구절을 몇 분간 읽고는 성경교사가 긴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 자체를 매우 길게 읽었는데, 많은 기록을 보면, 공동체가 1년 안에 토라 전체와 예언서 상당 부분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대신, 성경 자체를 매우 길게 읽었는데, 많은 기록을 보면, 공동체가 1년 안에 토라 전체와 예언서 상당 부분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주 몇 시간을 들여 성경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2세기 그리스도인이었던 순교자 유스티누스 (Justin Martyr)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마다 거의 하루 종일 모여, 복음서와 구약성경을 듣는 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합니다.[vi]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 공동체에서, 또 그로부터 몇 세대 후 그분의 제자들의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양식을 얻었던 주된 통로는 정기적으로 모여 긴 시간을 들여 행하는 공동체성경읽기였습니다.

기원후 4세기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과 예배 관습을 유대 공동체 전통의 연장선으로 여겼고, 공동체성경읽기는 그 전통의 일부였습니다. 그 세기 인물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tostom)은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에는 회당에 참석하고 일요일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유대교 예배와 그리스도교 예배 사이에 있던 연속성을 보여주는데, 유대교 의식의 요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리스도교 관습들에서도 유지되었던 것입니다.[vii]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한 것처럼 공동체성경읽기 관습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음서 낭독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식사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하며, 히브리 성경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주의를 기울이셨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초점을 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유대교 예배와 그리스도교 예배 사이에 있던 연속성을 보여주는데, 유대교 의식의 요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리스도교 관습들에서도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회당: 그때와 지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꾸준히 회당에 출석하셨다는 사실이 왜 현대 신자들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순종의 궁극적 모델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신실한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부름을 받은 이들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은 성령을 힘입어 변화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 –로마서 8:29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로마서 8:29).

오늘날 회당 예배에서 공동체성경읽기는 전통에 따라 세밀하고 경건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토라 두루마리를 토라 아크(Torah Ark)에서 꺼내 오는 엄숙한 행진으로 시작됩니다. 회중 가운데 지정된 이들이 연간, 절기별 성구집(*parashot*)에서 그날에 해당하는 성경 부분을 선율을 붙여 낭독하는 순서가 보통 45분에서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낭독이 끝나면, 축복 기도가 낭송되고, 예를 갖추어 두루마리를 다시 토라 아크(Torah Ark)에다 넣습니다. 이렇듯, 길고 경건한 성경낭독이 회당 예배의 중심을 이루며, (주로 기도서에 적힌 시편들을 가지고 하는) 기도들과 랍비의 짧은 강론, 그리고 기타 전례 순서들이 추가로 행해집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이러한 공동체성경읽기 전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예배 습관과 중요한 연결점을 제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꾸준히 회당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거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경청하고 내면화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신실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영적 삶의 궁극적인 모델로 여기는 모든 신자는 공동체성경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영적 삶을 기르고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만들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이러한 공동체성경읽기 전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예배 습관과 중요한 연결점을 제공합니다.

주

i. Jonathan Sacks, Genesis: The Book of Beginnings (*Covenant & Conversation 1*) (Kindle Edition), 203.

ii. Steven Fine, *Jews, Christians and Polytheists in the Ancient Synagogue* (Taylor and Francis, Kindle Edition), 3.

iii. Cited in Steven Fine, *This Holy Place: On the Sanctity of the Synagogue during the Greco-Roman Period* (Chicago: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30.

iv. *Steven Fine, Jews, Christians and Polytheists in the Ancient Synagogue* (Taylor and Francis, Kindle Edition), 178.

v. Jordan J. Ryan, *The Role of the Synagogue in the Aims of Jesus* (Fortress Press, Kindle Edition), 69.

vi. Justin Martyr, *First Apology*, 67.

vii. James H. Charlesworth, "Prolegomenon to a New Study of the Jewish Background of the Hymns and Prayers in the New Testament," *Journal of Jewish Studies* 33 (1982): 269–270, cited by Paul F. Bradshaw, *The Search for the Origins of Christian Worship* (Oxford Press, 2002), 33.

Notes

Notes

Notes

Notes

Notes

Notes

Notes

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16-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4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심)

Public
Reading
of Scripture

prsi.org/ko